

노동의 시대는 끝났다

대니얼 서스킨드

• 들어가며

'21세기에 모든 사람이 일할만큼 일자리가 충분할까?' -> 아니오

그렇다면 '기술적 실업'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기술진보가 한 가지 문제 즉, 파이를 모든 사람이 먹고살 만큼 크게 키우는 문제는 해결할 것이다. 하지만 그 대신 앞에서 봤듯이 불평등, 기술 대기업의 정치적 힘, 삶의 목적이라는 세 가지 문제를 우리 앞에 던져 놓을 것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벗어날 수 없는 미래의 모습을 받아들이면서도, 우리가 모두 함께 번영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PART I 기술과 일의 역사

chapter 1 선부른 불안

30만년 전 현생인류가 출현한 뒤로 대부분 동안, 경제생활은 계속 제자리걸음에 가까웠다. 하지만 그토록 오래 움직이지 않던 경제는 마침내 지난 몇백 년 동안 폭발을 일으켰다. 1인당 생산량이 13배 늘어났고, 세계 총생산이 거의 300배나 솟구쳤다.

산업혁명 뒤로는 경제가 꽤 풍부하고 물 흐르듯 성장하기 시작했다.

• 러다이트와 자동화 불안

사람들은 자동화가 일자리를 없애리라는 불안 때문에 항의와 반대를 쏟아 냈다.

• 이번에는 다를 수도 있다

신기술이 경제적 피해를 미칠까 걱정했던 불안은 대부분 선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자들이 신기술에 밀려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대다수가 마침내 새로운 일을 찾은 것도 사실이다. 사람들은 '이번은 다르다'고, 최신 기술 때문에 대량 해고가 정말로 코앞에 닥쳤다고 걱정하기를 되풀이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때마다 거의 마찬가지로, 대량 해고는 일어나지 않았다.

기술에 밀려난 뒤에도 사람들은 새로운 일거리를 찾아냈다. 하지만 그 과정은 결코 평온하지도 원활하지도 않았다.

• 인간을 보완하는 유익한 힘

기계가 사람을 대체하기만 하지는 않았다. 자동화되지 않은 다른 업무에서는 인간을 보완했으므로, 그런 일을 맡을 인력의 수요를 늘렸다. 기술과 일의 역사를 통틀어 보면 언제나 서로 다른 두 힘이 작용했다.

노동자를 보완하는 힘은 세 가지 방식으로 영향을 미친다.

- 생산성 효과: 신기술이 어떤 업무를 자동화해 노동자에게서 빼앗으면서도, 바로 그 노동자들이 맡은 다른 업무에서는 생산성을 높일 것이다.

- 파이 확대 효과: 어떤 업무는 자동화되어 기계의 몫이 될 것이다. 하지만 경제가 확장하면 상품과 서비스 수요도 함께 늘어나므로 그런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모든 업무의 수요도 같이 늘어나게 된다.

- 파이 탈바꿈 효과: 어느 시점에 어떤 업무가 자동화되어 기계에 넘어간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경제의 모습이 계속 바뀌므로 다른 분야에서 다른 업무의 수요가 늘어난다. 이때도 새로 요구되는 생산 활동 가운데 일부는 자동화되지 않았으므로 노동자들은 자신의 노동력이 필요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

• 큰 그림을 보라

산업혁명에서부터 오늘날까지 기계 때문에 자신들이 영원히 실직자로 밀려나리라고 걱정했던 노동자들

은 틀렸다. 인간을 대체하는 해로운 힘과 보완하는 유익한 힘의 싸움에서 지금껏 후자가 이겼다. 그리고 언제나 인간의 노동을 찾는 수요가 충분히 컸다. 그러니 이를 '노동의 시대'라 부를 수 있다.

chapter 2 노동의 시대

노동의 시대란 잇따른 기술 진보의 물결이 노동자에게 해를 끼치기보다 폭넓게 도움이 된 시기라 정의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진보가 대체로 노동자에게 이로웠을지라도, 언제나 모든 노동자에게 이롭지는 않았다.

• 20세기와 그 이전

20세기 후반 대부분 동안, 기술 변화로 혜택을 가장 많이 본 노동자는 정식 교육을 더 많이 받은 사람들이었다.

21세기로 들어설 무렵, 경제학자들의 통념은 때로 숙련에 편향하기도 하고 때로 비숙련에 편향하기도 했다. 하지만 어느 쪽에 서든 경제학자들은 기술 진보가 언제나 노동자에게 대체로 이롭다고 생각하곤 했다. 사실 경제학에서 주로 사용한 모델에서는 신기술이 숙련 노동자든 비숙련 노동자든 어떤 노동자들을 더 가난하게 만드는 일이 불가능했다. 이 모델에 따르면 기술 진보가 때에 따라 어떤 사람에게 더 이득일지언전 언제나 모든 사람의 임금을 올렸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는 워낙 널리 퍼져서, 주요 경제학자들은 이를 가리켜 '표준모델'이라 부른다.

• 21세기가 쓰는 새로운 이야기

ALM 가설(Autor-Levy-Murnane Hypothesis)은 기계는 '틀에 박힌' 업무는 손쉽게 수행할 수 있지만, '틀에 박히지 않은' 업무는 힘겨워 한다고 주장한다.

기술 진보는 흔히들 말했던 이야기와 달리 숙련에 편향하지도, 비숙련에 편향하지도 않았다. 정확히 말하자면, 기계가 어떤 업무는 수행할 수 있지만 어떤 업무는 수행하지 못했으므로, 기술 진보는 업무에 따라 편향했다. 달리 말해, 기계가 처리하지 못하는 '틀에 박히지 않은'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만이 기술 변화에서 이익을 얻었다.

• ALM 가설에서 얻은 통찰

중요한 사실은 그 업무가 얼마나 '틀에 박혔느냐' 여부다.

• 낙관적 사고방식, 인간의 일은 언제나 존재한다?

ALM 가설은 '틀에 박히지 않은' 업무는 사람들이 수행 방법을 쉽게 설명하지 못하므로 기계에 가르치지 못한다는 근거를 제공한다.

chapter 3 실용주의 혁명

20세기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처음으로 연구자들이 인간과 겨루겠다는 진지한 목적으로 기계를 만들기 시작했다.

• 1차 AI 물결: 인간을 모방하려는 시도

인공지능 연구 초창기에는 연구자 대다수가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 기계를 만들려면 인간이 그 업무를 어떻게 수행하는지 관찰해 그대로 본떠야 한다고 믿었다.

하지만 인간을 본떠 기계를 구축하는 접근법은 끝내 성공하지 못했다.

진전이 주춤하자, 연구자들은 막다른 길에 다다른 것을 깨달았다. 1980년대 후반의 이 침체기를 '인공지능의 겨울'이라 부른다.

• 2차 AI 물결: 과제를 수행하는 로봇

실용주의자였던 이 개발자들은 인간이 수행한다면 지능이 있어야 하는 과제를 골라, 이 일을 완전히 다르게 수행할 기계를 만들었다. 바로 이 방식이 인공지능의 겨울을 끝냈다. 그래서 나는 이 변환을 실용주의 혁명이라 부른다.

오늘날 AI의 발전을 상당 부분 이끄는 기계 학습 알고리즘은 시스템이 외부 규칙에 좌우되지 않고 스스로 경험에서 배우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 우선순위의 변화: 인간에서 기계로

AI 연구 초기에는 많은 AI 연구자가 자신을 인지 과학자로 여겼지, 컴퓨터 과학자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이들은 자신들이 훨씬 큰 연구 즉, 인간의 뇌를 이해하는 연구의 하위 분야를 연구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우선순위가 바뀌고 있다. 기술 진보가 빨라지면서 인간의 지능이 기계의 성능을 높이는 유일한 길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졌다. 이제 많은 연구자가 인간의 지능을 이해하는 쪽보다 작동 성능이 뛰어난 기계를 만드는 쪽에 더 흥미를 느낀다.

- 지적 설계가 아닌 자연선택

인공지능에서 일어난 실용주의 혁명은 인간이 만든 기계의 능력이 어디에서 비롯하는지를 자연선택처럼 뒤집어 생각하라고 요구한다. 오늘날 성능이 가장 뛰어난 시스템은 지능이 뛰어난 인간이 하향식으로 설계한 것이 아니라, 사실 다윈이 100년 전 발견한 대로 인간의 지능을 전혀 닮지 않은, 앞을 보지 못하는 의식 없는 상향식 과정에서 비범한 능력이 서서히 생겨날 수 있다.

chapter 4 기계 경시

AI 연구자와 경제학자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은 인간의 지능과 특징을 더는 베끼지 않는 새로운 기계의 능력 때문에 거뜬거뜬 곤경에 빠졌다.

- 순수주의자들의 실망

오늘날 성능이 뛰어난 기계들은 인간의 지능을 이해할 실마리를 거의 알려 주지 않는다. 그러므로 당연히 하향적으로, 순수주의자들은 실망에 빠졌다.

이 실망 자체만 놓고 보면 터무니없지가 않다. 하지만 걸핏하면 그렇듯 실망이 폼으로 이어질 때 문제가 불거진다. 이 비평가들 몇몇은 최신 기계들이 지능이 있는 인간처럼 생각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저 그런 알파벳 시스템이라 깎아내린다. 그리고 그 결과, 기계의 능력을 체계적으로 과소평가한다.

- '범용 인공지능'에 사로잡혀 우리가 놓쳐 버린 것

순수주의자 사이에는 범용 인공지능만이 '진짜' 인공지능이고, 따라서 이런 범용 능력이 없다면 이런 기계들이 어떤 일을 하든 절대로 인간의 '진정한 맞수'가 되지 못한다는 인식이 퍼져 있다.

하지만 우리가 범용 인공지능에 사로잡힌 탓에, 그래서 인간처럼 범용 능력을 지닌 기계를 만드는 데 정신이 팔린 탓에, 그런 능력이 없더라도 기계가 매우 강력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할 위험이 있다. 인간을 빼닮아 한순간에 노동자를 밀어낼 수 있는 단일 기계를 만들지 않더라도 우리는 기계에 위협받을 수 있다.

- 실용주의 혁명이 경제학자에게 미친 영향

인공지능에 일어난 실용주의 혁명은 경제학자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지난 몇 년 사이에 ALM 가설을 무너뜨렸기 때문이다.

왜 ALM 가설의 예측이 엇나갔을까? ALM 가설이 실용주의 혁명을 무시했던 것이 문제였다. 경제학자들은 컴퓨터가 어떤 업무를 완수하려면 인간이 축적한 명시적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기계의 능력은 인간의 지능을 하향식으로 적용하는 데서 비롯해야 한다고 봤다. 1차 AI 물결의 기대에는 이 생각이 맞았을 것이다. 하지만 알다시피 이제는 그런 생각이 들어맞지 않는다. 이제 기계는 업무를 수행하는 법을 스스로 익혀 자신만의 규칙을 상향식으로 도출할 줄 안다.

어떤 기계들은 인간이 명확히 표현하지 못한 규칙을 실제로 우연히 맞닥뜨려 틀에 박히지 않은 업무를 틀에 박힌 업무로 바꿔 놓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많은 기계가 이제 인간이 따르는 규칙과 상관없는 완전히 새로운 규칙을 도출한다는 사실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는 표현만 다를 뿐 같은 의미로 볼 수 없는 심각한 변화다. 기계는 이제 인간의 지능에 매달리지 않는다.

- 인공지능은 인간을 모방할 필요가 없다

'인공지능 착오'란 인간과 같은 수준으로 업무를 수행할 줄 아는 기계를 개발할 유일한 길은 인간이 그 업무를 수행하는 법을 그대로 베끼는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이다. 이런 착오가 오늘날까지도 널리 퍼져,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이 기술과 일을 바라보는 사고방식을 형성한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유혹이 있다. 기계는 우리처럼 논리적으로 사고할 줄 모르니, 절대 판단할 수 없어. 기계는 우리처럼 생각할 줄 모르니, 절대 창의성을 발휘할 수 없어. 기계는 우리처럼 느끼지 못하니, 절대 다른 사람에게 공감할 수 없어. 이 말들이 모두 맞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사람이 수행할 때는 공감, 판단, 창의성이 필요한 과제를 기계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놓친다.

- 인간 지능의 추락

기계가 인간의 지능을 모방하지 않고도 매우 유능해진다면, 오늘날 인간이 가진 능력이 앞으로 기계가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를 나타낸다고 생각할 이유가 없다.

PART II 위협

chapter 5 업무 잠식

기계의 능력을 따져 볼 더 나은 방법은 구체적인 한계를 알아내려 애쓰지 않는 것이다. 분류하려는 유혹을 억누르고, 기계가 모방하기 어려운 인간의 능력이나 처리하기 힘든 업무의 목록을 작성하려는 본능을 가라앉히고, 더 큰 추세를 알아내는 것이다.

앞으로 기계가 어떤 능력을 지니지는 정확히 말하기 어렵지만, 지금보다 더 많은 일을 하리라는 점은 틀림이 없다. 시간이 지날수록 기계는 서서히 그러면서도 끈질기게 발전해 인간이 수행하는 업무 영역으로까지 발을 넓힐 것이다.

한 때 사람이 수행했던 업무를 갈수록 기계가 더 많이 맡는 이 큰 추세를 '업무 잠식'으로 볼 수 있다.

- 신체 능력: 무인화가 가져올 파장

문을 열고, 벽을 기어오르고, 계단을 오르고, 뒤로 공중제비를 돌고, 험악한 지역을 가로질러 케이블을 설치하고, 공중에서 밧줄을 묶을 줄 아는 로봇들이 이미 나와 있다. 전 세계 산업 로봇의 대수도 꾸준히 늘고 있다. 로봇 산업계가 세운 국제 로봇공학 연합회는 2020년이면 현장에서 사용되는 산업 로봇이 2014년에 견줘 적어도 두 배가 늘어난 300만 대에 이를 것으로 내다본다.

- 인지 능력: 알고리즘이 인간을 대체한다

기계는 이제 물리적 세계를 주무르는 데 그치지 않고, 지금까지는 인간의 사고와 추론 능력이 필요했던 업무까지 점점 잠식하고 있다.

때로는 인간이 인지 능력을 발휘해야 하는 업무를 기계가 잠식할 때 논란이 벌어지기도 한다.

- 감성 능력: 인간의 감정에 반응하는 로봇

물리적 세상과 인지 영역 말고도, 기계는 이제 감정과 정서를 느낄 줄 아는 감성 능력이 필요한 작업까지 잠식하고 있다. 실제로 '감성 컴퓨팅'이라고 부르는 컴퓨터 과학 분야는 이런 작업을 맡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온 힘을 쏟는다.

인간의 감정을 감지해 대응할 줄 아는 이런 기계들의 사례는 놀라울 따름이다. 하지만 이런 기계에 너무 초점을 맞추면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인간을 그대로 본뜨지 않아도 기계가 어떤 업무를 인간보다 뛰어나게 수행할 수 있다.

- 업무 잠식은 예측이 아닌 현실이다

기계는 서서히 더 많은 업무를 잠식하고, 시간이 갈수록 끊임없이 능력을 향상할 것이다.

- 지역에 따라 다른 속도

기계의 능력이 갈수록 향상한다지만, 이 기계들이 세계 전역에서 똑같은 속도로 적용된다는 뜻은 아니다.

- 과제의 차이: 나라가 다르면 일자리의 유형이 달라지고, 그중 어떤 일자리는 자동화가 훨씬 힘든 업무를 다른 일자리보다 더 많이 포함한다.

- 비용의 차이: 기계가 장소에 따라 다른 속도로 받아들여지는 두 번째 이유는 비용이다. 앞으로도 상대적으로 비용 때문에 신기술이 국가에 따라 불균형하게 적용될 것이다.

- 규제 및 문화의 차이: 국가의 의도만큼이나 개인이 이러한 신기술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와 또 그런 반응들이 새로 어떤 문화를 형성하는지도 중요하다.

거의 모든 국가에서 기계의 성능이 갈수록 향상해, 한때 인간만이 할 수 있었던 업무 영역을 어느 때보다 깊이 그리고 서서히 파고들 전망이다.

chapter 6 마찰적 기술 실업

일의 미래는 두 힘, 대체하는 해로운 힘과 보완하는 유익한 힘에 달렸다.

실용주의 혁명은 경제학자들이 확고하다고 생각한 기계의 한계가 그렇게 견고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했다. 물론 이 현상을 꼭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다. 경제사에서 보듯이, 보완하는 힘이 충분히 오래 유지되기만 한다면 기계가 다양한 업무 영역에서 인간을 대체하는냐는 중요하지 않다.

산업혁명이 시작된 뒤로 그랬듯이 우리는 여전히 노동의 시대에 산다.

- 일거리는 있다, 다만 손에 닿지 않을 뿐

마찰적 기술실업이 나타나는 상황에서는 사람이 맡을 일거리가 있다. 문제는 모든 노동자가 그 일거리에 손을 뻗쳐 일감을 차지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데는 세 가지 뚜렷한 이유가 있다. 노동시장에서 나타나는 이 세 가지 마찰은 숙련 기술의 불일치, 정체성의 불일치, 장소의 불일치다.

- 숙련 기술의 불일치

몇백 년 전 기계에 이끌려 들에서 일하던 전통적인 삶을 떠났을 때만 해도, 인간은 꽤 쉽게 제조업으로 이동했다. 농장에서 공장으로 이동한다는 것은 일이 바뀐다는 뜻이었지만 거기에 필요한 새로운 숙련기술을 습득하기가 쉬웠다. 여전히 육체노동이었기 때문이다.

육체노동에서 인지노동으로 이동하는 것은 지위가 올라가기를 바랐던 하층 노동자에게 더 어려운 일이었다. 그래도 여전히 많은 사람이 적합한 숙련 기술을 익힐 수 있었다. 게다가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반에 의무 교육이 새로운 열광 속에 뿌리내린 덕분에 많은 사람이 계속 위로 올라가는 데 도움을 얻었다.

하지만 오늘날 이 경주에 뛰어들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훨씬 거친 경주가 벌어지는 듯하다. 세계 속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은 사람의 비율이 정체하고 있다.

- 정체성의 불일치

지난 15년 동안, 노동시장의 꼭대기를 노렸던 많은 고학력자마저 원했던 일자리를 놓치는 바람에 마치 못해 자신의 자질에 못 미치는 일자리로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제 대학 졸업자들은 갈수록 이전보다 인지 능력과 숙련 기술이 덜 필요한 직무를 맡고 있다.

저임금이나 저숙련 일자리로 이동하느니 차라리 실업자가 되는 쪽을 선택한 사람도 많았다.

- 장소의 불일치

숙련 기술이 있고 또 맡고 싶더라도, 주거지를 옮길 수 없어서 실업에 처할 수도 있다.

- 실업만이 문제가 아니다

오늘날 미국의 실업률은 3.7퍼센트로 놀라울 만큼 낮다. 하지만 노동 참가율은 무너져, 1977년 이래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앞으로도 실업률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도록 조심하여, 노동 참가율을 계속 눈여겨보아야 한다.

경제사가 뚜렷이 보여 주듯이, 신기술은 일거리의 양뿐 아니라 매력도 줄인다. 산업혁명에서 이런 현상을 슬쩍 엿볼 수 있다. 당시 실직자가 많지는 않았지만, 산업혁명으로 생겨난 일자리는 대부분 그다지 만족스럽지 않았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현상이 이어질 것이다.

일자리를 아예 구할 수 없는 기술적 실업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신이 맡을 수 있는 잔여 일자리로 떼지어 몰려드는 기술적 과밀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현상은 직접 실업률을 높이기 보다는 일의 성격에 세 가지 해로운 영향(임금 하락, 일자리의 질 저하, 일자리의 지위의 분리)을 미칠 수 있다.

chapter 7 구조적 기술 실업

일자리가 정말로 너무 적어 사람들에게 골고루 돌아가지 못하는 이런 상황을 '구조적' 기술 실업으로 볼 수 있다. 경제학자 대다수는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좀처럼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지난 300년 동안 급격한 기술 변화가 일어난 뒤에도 여전히 일거리가 충분했다는 사실이, 앞으로도 인간의 노동을 찾는 수요가 언제나 충분하리라는 신호일까?

지금까지는 노동자를 밀어내는 대체하는 힘이 다른 곳에서 이들의 노동 수요를 늘리는 보완하는 힘보다 약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두 힘의 이런 균형이 반대로 기울어질 확률이 높다. 그것도 영원히.

• 보완하는 힘의 약화

과거에는 보완하는 힘이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의 수요를 생산성 효과, 파이 확대 효과, 파이 탈바꿈 효과 이렇게 세 갈래로 높였다. 하지만 앞으로 기계가 계속해서 사정없이 끈질기게 발전하면 세 효과가 모두 힘을 잃을 듯하다.

- 생산성 효과: 인간과 기계의 결합은 기계가 인간 동업자가 기여하는 몫을 수행할 수 없을 때만 힘을 얻는다. 하지만 기계의 능력이 갈수록 향상하므로, 인간이 기여할 몫이 줄어들다가 마침내는 이런 동업자 관계가 끝나고 만다. 즉, '인간과 기계'에서 '인간'이 쓸모없어진다.

- 파이 확대 효과: 우리는 (아직) 노동의 시대에 살고 있으므로, 새로운 업무가 생기면 그 업무를 수행하기에 인간이 기계보다 더 유리할 확률이 높다. 하지만 업무 잠식이 이어지면 인간보다 기계가 유리해질 확률이 갈수록 더 높아진다.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나면, 늘어나는 상품 수요가 인간의 노동이 아닌 기계의 수요만을 늘리게 된다.

- 파이 탈바꿈 효과-소비자: 미래에는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가 바라는 것과는 다른 상품과 서비스를, 더 나아가 오늘날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바랄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꼭 노동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리라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때도 그런 상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에 인간이 기계보다 유리할 때만 노동 수요가 커지기 때문이다.

- 파이 탈바꿈 효과-생산자: 경제가 탈바꿈할 때 일자리를 잃은 사람은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그 일자리에 필요한 복잡한 신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 이와 달리 일자리를 잃은 말은 수레를 끌어 무거운 짐을 나르는 데만 적합했으므로, 어느 경제 영역에서도 갈 곳이 없었다. 지금은 경제에 새로 생겨나는 업무를 수행하기에 인간이 가장 적합하다는 이런 가정이 맞을 것이다. 하지만 미래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나 이어질지가 매우 불투명하다.

말 가격이 아무리 내려갔어도, 기업인들이 값싼 말을 이용할 동기가 아무리 강력했어도, 말이 말았을 때 기계보다 효율이 더 뛰어난 일이 거의 남아 있지 않았다. 말을 경제적으로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다. 앞으로 기계의 능력이 더 향상하면, 오늘날 말이 그렇듯 여러 경제활동 영역에서 인간이 기계에 견줘 하잘것없는 존재가 될 것이다. 새로운 업무를 인간 대신 기계가 갈수록 더 많이 수행할 것이다. 그리하여 파이 탈바꿈 효과가 인간이 아니라 기계를 보완할 것이다.

• 우월성 추정은 틀렸다

어떤 업무의 수요가 늘어나면, 그 업무를 맡기에 기계보다 인간이 유리할 확률이 높았다. 따라서 노동자를 찾는 수요도 늘어났다. 하지만 업무 잠식이 이어져 기계가 인간에게서 갈수록 더 많은 업무를 앗아가면서, 이 추정이 갈수록 미심쩍어 보인다. 그리고 언젠가는 끝내 틀린 추정이 될 것이다.

• 우리에게 남는 업무는 얼마나 많은가

오늘날 존재하는 다른 여러 일자리나 아직 존재하지 않는 여러 일자리가 미래에도 기계보다 인간에 더 적합할 업무를 포함하리라고 생각할 근거는 아주 타당하다. 하지만 그런 업무의 수가 줄어들므로 그런 업무의 수요가 모든 사람을 고용할 만큼 많으리라고 생각할 근거는 없다.

• '노동 총량 불변의 오류'의 오류

노동 총량 불변의 오류란 기술 진보에 유익한 측면 즉, 보완하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잊을 때 저지른다고들 말하는 실수다. 이 이론에 따르면, 일의 총량은 정해져 있다. 따라서 노동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을 너무 많이 하지 않도록 조심해 노동 총량이 전체 노동자에 골고루 얇게 퍼지도록 하는 것이 노동

자의 이익에 가장 부합한다.

노동 총량 불변의 오류는 노동 총량이 정해져 있다고 잘못 추정한다. 하지만 노동 총량 불변의 오류의 오류는 노동 총량이 증가할 때, 기계가 아닌 인간이 수행하기에 적합한 업무를 반드시 포함한다고 잘못 추정한다.

- '노동의 시대'는 저물고 있다

일의 세계는 어느 날 갑자기 한꺼번에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서서히 줄어들 뿐이다. 대체하는 힘이 보완하는 힘을 나날이 앞질러 두 힘의 균형이 더는 인간에게 유리하지 않으면, 인간의 노동을 찾는 수요가 서서히 줄어든다.

노동의 시대에 우리는 모든 기술 진보가 궁극적으로는 전체 노동자에게 이롭다는 환상을 키웠다. 하지만 이런 산업 로봇의 보완하는 힘이 일부 노동자를 도왔다는 사실을 고려할지라도, 전체 노동자의 상황은 훨씬 더 나빠졌다.

- 일이 줄어드는 시기는 언제인가

마찰적 기술 실업이 이미 뚜렷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오늘날 경제생활의 몇몇 구역에서는 구조적 기술 실업이 어떻게 나타날지도 엿볼 수 있다. 기술의 흐름으로 볼 때,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변화가 극심해지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기가 어렵다.

게다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잃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기술적 실업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를테면 15~20퍼센트가 일자리를 잃는 세상에서 실업이 불러올 불안정에도 지금부터 관심을 쏟아야 한다.

- 기술적 실업이 드러낼 우리의 본모습

기술적 실업이 일으킬 위협은 이미 지금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어떤 문제가 더 극심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그 문제는 바로 불평등의 증거다.

chapter 8 기술과 불평등

경제적 불평등은 문명만큼이나 오래된 현상이다. 사회의 풍요는 언제나 고르지 않게 분배되었고 인간은 언제나 이 문제에 어떻게 대처할지 의견을 모으고자 애썼다.

부를 나누고자 거의 모든 사회가 시장의 작동 방식을 정해, 사람들이 하는 일과 소유하는 물건에 다양한 방식으로 대가를 지급했다. 하지만 기술 때문에 불평등이 깊어지는 일이 잦아지면서 시장의 작동 방식이 압력을 받기 시작했다. 오늘날 시장은 일부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보상을 안기지만 많은 사람들에게는 쥐꼬리만 한 보상만을 안길 뿐이다.

- 두 가지 자본

전통 자본이란 "어떤 시기에 어떤 국가의 정부와 거주자들이 소유한 것 가운데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모든 것"이다.

인적 자본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안 쌓아 일에서 활용하는 모든 숙련 기술과 재능을 아우른다. 인적 자본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인간을 신비로운 존재로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경제 요소와 달리 인간에게 마법의 힘이 있다고 여기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앞에 어떤 난관이 놓여 있을지를 명확히 사고하는 데 도움이 된다.

- 기술적 실업이라는 난관

기술적 실업은 어떤 사람들이 지닌 인적 자본이 노동시장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을 때, 달리 말해 이들의 숙련 기술과 재능을 활용하는 데 아무도 대가를 치르려 하지 않을 때 일어난다.

그렇다고 이들에게 인적 자본이 전혀 없다는 뜻은 아니다. 문제는 일이 줄어드는 세상에서는 이런 인적 자본이 가치가 없을지 모른다는 것이다.

불평등은 어떤 사람이 소유한 자본의 가치가 다른 사람의 자본보다 훨씬 떨어질 때 생긴다.

현재 존재하는 불평등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주변에서 이미 일어나는 현상에 비춰 일이 부족한 세상이 어떻게 모습을 드러낼지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찌 보면,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불

평등은 내일 기술적 실업이 나타날 것을 알리는 경고다.

- 소득 불평등의 전반적인 증가

지난 30~40년 동안 대다수 선진국에서 지니계수가 꽤 많이 올랐다. 달리 말해 경제의 파이가 매우 큰 부유한 나라들이 파이를 과거보다 덜 고르게 나누었다.

1980년 이후 가장 부유한 계층의 소득이 가장 많이 늘어났다.

국민 소득에서 최상위 1퍼센트 소득층의 점유율이 특히 선진국에서 꽤 많이 늘어났다.

소득 불평등은 도대체 왜 커질까? 가치 있는 자본이 갈수록 공평하지 않게 분배되기 때문이다.

- 부익부 빈익빈 현상

우리 대다수는 인적 자본 즉, 살아오면서 익힌 다양한 숙련 기술 말고는 다른 자본이 거의 없다. 그러므로 급여가 주요 소득원이다. 소득 불평등은 노동자들이 수고의 대가를 갈수록 더 불공평하게 받기 때문에 커진다.

눈여겨볼 사항은, 노동 소득의 이런 불평등이 특히 기술 진보 때문에 증가했다는 점이다. 20세기 후반부터 신기술 때문에 고학력 노동자와 나머지 노동자의 임금 격차가 커졌다. 즉, 숙련 프리미엄이 커졌다.

- 노동 소득 분배율의 감소

20세기 대부분 동안 사람들은 두 소득의 비중이 크게 보아 언제나 한결같이 유지되어 전체 파이에서 노동 소득이 3분의 2를 차지하고 전통 자본으로 얻는 소득이 나머지 3분의 1을 차지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난 30~40년 동안 세계 곳곳에서 노동자가 가져가는 파이 조각 즉, 경제학자들이 노동 분배율이라 부르는 몫은 줄어들었고, 전통 자본을 소유한 이들이 가져가는 파이 조각 즉, 자본 분배율은 늘어났다.

노동 분배율이 이렇게 엄청나게 줄어든 까닭도 기술 진보 때문이다. 기술은 기업들이 노동보다 전통 자본을 더 많이 이용하는 쪽으로 바뀌도록 부추겼다.

노동 분배율 하락의 또 다른 원인은 '슈퍼스타' 기업의 증가다. 슈퍼스타 기업이란 경쟁사보다 생산성이 뛰어나 해당 시장에서 큰 점유율을 차지하는 데 힘입어 높은 수익률을 올리는 소수의 회사다. 이런 슈퍼스타 기업은 그들이 밀어낸 경쟁사에 비해 대개 생산량당 노동 투입량이 적다. 따라서 이 기업들의 지배력이 더 강해질수록, 전체 경제에서 노동소득 점유율이 떨어진다.

- 0.1퍼센트 대 90퍼센트

노동자에게 가는 파이가 줄어드는 만큼, 전통 자본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가는 파이가 더 커진다. 불평등을 걱정한다면 이 추세야말로 특히 문제가 많다. 전통 자본으로 얻는 소득이 급여 소득에 견줘 사회 전체에 훨씬 덜 고르게 분배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재산 기준 지니계수는 앞에서 소득 기준으로 계산한 지니계수보다 두 배나 높게 나타난다.

미국은 이제 상위 0.1퍼센트가 하위 90퍼센트의 재산을 모두 합친 것과 똑같은 부를 소유한다. 이는 예전 1930년대와 비슷한 사회 구조로 돌아가는 퇴보다.

- 불평등이 가져올 앞날 내다보기

전 세계가 똑같은 기술 변화에 노출되어 있지만, 위에서 언급한 대로 날로 커지는 불평등 아래 깔린 세 가지 추세는 나라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인다.

발전 수준이 비슷한 국가들 사이에서도 불평등 수준이 무척 다르게 나타난다는 사실은 불평등을 형성하는 데 국가 정책과 제도가 무척 중요하다는 점을 뚜렷이 드러낸다.

처음에 어쩔 수 없이 타고나는 불균형과 최종적인 소득 불균형 사이에, 우리가 한 사회로서 함께 결정해 구축하는 모든 제도가 있다. 교육 제도, 조세 제도, 복지 제도, 노동조합, 최저임금법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불평등은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니다. 그리고 기술적 실업이 불러올 경제적 불균형도 마찬가지다. 우리에게 이런 경제 격차를 결정하고 제한할 힘이 있다.

- 분배 문제가 핵심이다

분배야말로 핵심 쟁점이다. 전체로 보면 세계 경제가 장밋빛으로 보이겠지만, '경제 문제'는 오로지 소

수의 운 좋은 특권층 안에서만 해결되었을 뿐이다. 대다수 사람들은 날로 커지는 경제의 파이에서 여전히 종잇장처럼 얇은 조각을 얻을 뿐이다.

오늘날에는 많은 사람이 전통 자본을 거의 소유하지 못해도 인적 자본으로 일에서 여전히 수익 즉, 노동 소득을 얻는다. 기술적 실업은 이런 소득 흐름도 바짝 마르게 해 이들을 빈털터리로 만들 위험이 있다.

PART III 대응

chapter 9 교육과 한계

기술적 실업의 위협을 마주할 때, 일의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들 즉, 평론가와 경제학자, 정치인과 정책 입안자들이 가장 흔하게 보이는 반응은 더 많은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마주하는 문제는 결국 숙련 기술의 문제로, 사람들에게 적합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기만 하면 해결된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기계의 능력이 훨씬 더 향상하면 교육의 도움도 줄어들 것이다. 기술 진보로 생긴 고용 문제를 언제까지나 교육이 해결할 수 있다는 발상이 우리 머릿속 깊이 스며든 탓에, 이 통념을 의심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그러나 이 장의 후반부에서 보듯이, 이런 생각은 커다란 실수다.

• '더 많은 교육'에 대한 다양한 해석

교육이 노동자가 기술 진보에 적응하도록 돕는다는 믿음은 주로 지난 경험에서 비롯한다. 알다시피 20세기에는 기술 진보가 숙련에 편향했으므로, 교육을 더 많이 받은 노동자의 노력이 그렇지 않은 노동자에 비해 더 가치를 인정받았다. 그 시기에는 적합한 숙련 기술을 익혀 갈고닦은 사람들이 성공했다. 오늘날에도 교육은 젊은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효과가 매우 높은 경제적 투자다.

교육은 그저 개인을 돕는 데 그치지 않는다. 전체 경제가 앞으로 나아가도록 떠미는 역할도 한다. 다시 말하지만, 이런 역할은 특히 20세기에 크게 작동했다. 그런 까닭에 경제학자들이 20세기를 '인적 자본의 세기'라 부른다.

'더 많은'이 실제로 뜻하는 의미가 20세기 초에는 더 많은 사람을 뜻했다. 20세기가 끝날 무렵, '더 많은'의 의미가 바뀌었다. 모든 사람에게 학교 교육을 제공해 그저 더 많은 사람을 교육한다는 뜻이 아니라, 대학 교육에 초점을 맞춘 고등교육 증가를 뜻했다.

기술적 실업의 위협에 맞서는 가장 적절한 대응은 '더 많은 교육'이다. 하지만 나날이 능력이 향상하는 기계 앞에서 이제 '더 많은'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답은 현재 방식에 세 가지 변화를 꾀하는 것이다. 변화의 대상은 무엇을 가르칠지, 어떻게 가르칠지, 언제 가르칠지다.

• 무엇을 가르칠까: 혹은 가르치지 않을 것인가

사람들에게 기계가 못하는 일을 잘하게 할 숙련 기술을 가르쳐야 한다.

기계는 사람보다 더 뛰어나게 잘하는 업무는 사람들에게 가르치지 말라.

우리에게는 단순한 규칙이 남았다. 기계가 이미 뛰어난 업무 그리고 합리적으로 볼 때 머잖아 기계가 더 뛰어날 것으로 예견되는 활동을 사람들에게 가르치지 않는 것이다.

• 어떻게 가르칠까: 적응형 및 개별화 학습

평범한 학생이 1대1로 맞춤형 교육을 받으면 기존 교실 수업을 받는 일반 학생 98퍼센트보다 더 높은 학업 성과를 보인다.

전자 학습 방식인 '적응형' 학습이나 '개별화' 학습은 학생 한 명 한 명에 맞춰 가르칠 내용을 조정하면 서도 인간 교사에 견줘 비용이 훨씬 적게 들므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전망으로 보인다.

• 언제 가르칠까: 평생 학습 받아들이기

오늘날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교육이란 삶의 초창기에 받는 것이다. 달리 말해 따로 시간을 내어 인적 자본을 쌓았다가 나이가 들었을 때 그 자본을 꺼내 생산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라 여긴다.

이제 평생 시시때때로 교육받는 것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야 한다. 우리는 앞으로 끊임없이 재교육을 받아야 할 것이다.

- 교육 기관에 대한 비판

교육의 내용, 방법, 시기를 상황에 맞춰 조정할 수 있다면 지금은 교육이 기술적 실업에 맞서 우리를 지킬 최고의 방어벽이다. 그렇지만 지난 몇 년 동안 교육의 가치를 의심하는 눈초리가 급격히 커졌다. 특히 현재 대학 과정에서 제공하는 교육이 적절한지를 의심했다.

불만이 과장되었다 해도, 교육을 전반적으로 의심한 태도 자체는 중요하다. 전반적으로 볼 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교육 제도를 기꺼이 비평하려는 의지다. 제아무리 명성과 위신이 높은 기관도 미래를 생각할 때는 날카로운 비평을 마다해서는 안 된다. 거기에는 교육 기관도 예외가 아니다.

- 교육의 한계와 인간의 한계

- 문제1: 숙련 기술은 그림의 떡

오늘날 자동화의 위협에 대응할 수단으로 '더 많은 교육'을 제안하는 사람들은 더 많은 교육을 실현하기가 얼마나 어려울지를 그다지 심사숙고하지 않는다. 교육은 고된 과정이다. 노동자가 기계에 밀려나더라도 다른 숙련 기술이 필요한 일이 새로 생겨나면 그런 숙련 기술을 재빠르게 배울 수 있으니 다 잘 될 것이라니, 말은 참 좋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상황이 전혀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다. 재훈련이 어렵다는 사실은 마찰적 기술 실업이 일어나는 한 이유이기도 하다.

우리 인간은 모두 적응력이 한없이 크므로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배울 능력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상주의를 현실주의로 누그러뜨려야 한다. 만약 '어려운'일이 불가능한 일로 드러난다면, 재교육과 재훈련을 부추기는 격렬한 목소리들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 문제2: 부족한 수요

두 번째 어려움은 교육이 기껏해야 문제의 작은 부분 즉, 일자리는 있지만 그 일을 해낼 숙련 기술이 부족한 상황만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찰적 기술 실업이 숙련 기술 불일치 즉, 노동자들의 숙련 기술이 일자리에 맞지 않을 때만 일어나지는 않는다. 정체성 불일치와 장소 불일치로도 일어날 수 있다. 하지만 교육이 해결하기 어려워 공공델 더 중요한 문제는 구조적 기술 실업이다. 사람들이 교육받은 일의 수요 자체가 충분하지 않다면, 최고 수준의 교육도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을 터이기 때문이다.

기계가 인간과 다른 방식으로 작동할 때는 기계의 능력이 절대로 우리 인간의 최대 역량을 넘어서지 못한다고 생각할 근거가 없다. 오늘날 일의 미래에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들은 기계의 능력이 어디까지 향상할지, 공학의 한계가 어디일지를 짐작하는데 엄청난 시간을 쏟는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똑같이 냉정한 눈으로 바라보며 우리 인간의 한계와 교육의 한계를 묻는 사람은 거의 없다. 내가 보기에 인간의 이런 한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이에 와 있다.

- 경제적 번영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사람이 맡을 일이 부족해지는 세상이 다가오고 있다는 결론을 외면하기는 어렵다. 기술적 실업은 현실로 다가온 위협이다. 게다가 더 골치 아프게도, 오랜 대응 방식인 '더 많은 교육'의 효과가 시간이 갈수록 더 떨어질 듯하다.

기술적 실업에 적절하게 대응한다는 것은 경제 번영을 어떻게 나눌까 하는 물음을 해결할 새로운 답, 일자리와 노동시장에 전혀 의존하지 않는 답을 찾아낸다는 뜻이기도 하다. 앞으로 분배 문제를 해결하려면, 노동시장을 대체할 새로운 제도가 있어야 한다. 나는 그 제도를 '큰 정부'라 부르겠다.

chapter 10 큰 정부

지난 세기에 경제를 둘러싼 가장 큰 논쟁은 정부가 경제활동을 얼마나 관리해야 할지와 시장에서 서슴없이 제멋대로 움직이는 개인의 활동을 어디까지 내버려 둬야 할지였다.

20세기는 똑똑한 사람들이 관청에 앉아 커다란 청사진에 따라 모든 시민의 경제 활동을 조정하는 쪽이 자유로운 시장의 혼란 속에 나타나는 생산성에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증거를 강렬하게 제시했다. 하지만 내가 주장하는 큰 정부는 의미가 조금 다르다. 계획경제주의자들이 시도했다가 실패한 대로 정부를 이용해 파이의 크기를 키우자는 것이 아니라, 정부를 이용해 모든 사람이 파이를 나눠 갖도록 보장하자는 것이다. 달리 말해 큰 정부가 맡을 역할은 생산이 아니라 분배다.

- 복지 국가란 무엇일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미 큰 정부, 그러니까 '복지 국가'가 있지 않나? 오늘날 선진국 대다수는 노동시장과 아울러, 확실하거나 충분한 소득이 없는 사람들을 지원하도록 설계한 제도를 여럿 갖췄다.

20세기로 들어설 무렵, 이런 복지 제도의 지원 수준과 복잡성이 커지기 시작했다. 여러 국가에서 일자리가 없어 수입이 한 푼도 없는 사람들의 현실을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업 보험, 산업 재해 보조금, 질병 보험, 노령 연금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벌써 세계 곳곳에서 이런 소득 부양 제도와 정책을 적용하고 있으니, 이 제도와 정책들을 개선하고 확대하는 데만 집중해 몇 군데 손보고 추가 기금을 마련하면 괜찮지 않을까? 도대체 왜 큰 정부가 필요하단 말인가? 왜냐하면 이런 제도가 고용이 일상이고, 실업은 어쩌다 나타나는 예외인 세상에 맞춰 설계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이 줄어든 세상에서는 고용이 일상이지도, 실업이 예외이지도 않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그런 정신에 비춰 큰 정부가 맡아야 할 주요 역할은 두 가지다. 첫째, 앞으로 용케도 가치 있는 자산과 소득을 유지하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크게 매겨야 한다. 둘째, 그렇게 모은 돈을 자산과 소득이 없는 사람과 나누는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

- 소득이 쌓이는 곳에 세금이 있다

큰 정부는 여전히 소득을 유지하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매긴 뒤, 그 돈을 나머지 사회 구성원들에게 나눠줘야 한다. 그렇다면 첫 물음은 누구에게 또는 무엇에 세금을 매기느냐다. 현재 추세로 볼 때, 가장 가능성이 큰 장소는 세 곳이다.

- 노동자에게 매기는 세금

첫째, 큰 정부는 기술 진보로 인적 자본의 가치가 커지는 노동자들에게 세금을 매겨야 한다.

경제 이론에 따르면, 오늘날에도 경제 소득 최상층에 가장 적합한 세율은 현재 수준과는 거리가 꽤 먼 70퍼센트다.

- 자본에 매기는 세금

둘째, 큰 정부는 전통 자본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세금을 매겨야 한다.

이제 일이 줄어든 세상이 다가오고 있으니, 물려받은 인적 자본이 아니라 물려받은 전통 자본에 세금을 매기는 것을 더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

- 대기업에 매기는 세금

셋째, 큰 정부는 대기업에도 세금을 매겨야 한다. 대기업의 지배력이 커지면 노동자 수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이 기업들의 수익도 커진다. 일이 줄어든 세상이 다가오면, 이런 수익에도 반드시 제대로 세금을 매겨야 한다. 법률을 강화해 대기업이 마땅히 내야 할 만큼 세금을 내도록 해야 한다.

- 소득을 분배하는 정부

필요한 세수입을 거둔 다음에 큰 정부가 풀어야 할 문제는 '모든 사람이 충분한 소득을 얻도록 세금을 분배할 방법이 무엇이냐'이다. 지금껏 봤듯이 20세기에는 이 물음의 답이 주로 노동시장에 의지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일이 줄어든 세상에서는 이런 접근법의 효과가 지난날보다 현저하게 떨어질 것이다.

일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보편적 기본 소득이라는 발상에 크게 환호하는 까닭도 이 때문이다. 보수주의자는 보편적 기본 소득이 단순하므로 기존 복지 제도의 비효율적인 복잡함을 없앨 것 같아 좋아한다. 자유주의자는 이 정책이 상당한 소득을 지원하므로 가난을 완전히 없앨 것 같아 좋아한다.

소득 지원금을 현금으로 준다면 얼마를 줘야 할까? 얼마만큼이 '기본'이냐는 사실, 지원금의 목적이 무엇이냐에 달린 셈이다. 일이 부족한 세상을 배경으로 기본 소득을 생각한다면, 기본 소득의 목적이 판파레이스와 페인이 꿈꿨던 야심 찬 목표(진정으로 자유로울 정도)에 훨씬 더 가까워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본 소득과 관련하여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아야 할 물음이 있다. 지원금을 주는 조건은 무엇일까? 보편적 기본 소득을 지지하는 대다수는 보편적이라는 말 그대로 조건이 없다고 답할 것이다. 하지만 일이 줄어든 세상에서는 이 가정에서부터 벗어나야 한다. 내가 보기에 기술적 실업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조건적 기본 소득이다.

- 조건적 기본 소득이란 무엇인가

보편적 기본 소득이 '보편적'이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머릿속에 두 가지를 떠올린다. 첫째, 누구나 원한다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수급자에게 어떤 자격 조건도 요구하지 말아야 한다. 내가 제안하는 조건적 기본 소득은 두 측면에서 모두 다르다. 일부 사람들만 받을 수 있고, 분명한 자격 조건이 따라붙기 때문이다.

- 구성원 승인 정책

누구를 시민으로 봐야 할까? 공동체에서 누구를 포함하고, 누구를 배제해야 할까? 보편적 기본 소득에는 구성원 승인 정책이 빠져 있다.

더 적은 사람이 더 넉넉한 복지를 누리는 이른바 '복지 국수주의'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고개를 들고 있다.

노동의 시대에는 남을 배제하려는 이런 본능을 누그러뜨리고 다른 쪽으로 설득할 경제적 근거가 있었다. 이민자들이 들어와 일하면 경제의 파이가 커진다. 따라서 더 많은 사람이 들어오더라도 기존 시민들의 몫이 꼭 작아지지는 않는다. 오히려 1인당 소득이 늘어날 때가 많다 등. 하지만 일이 줄어든 세상에서는 이런 대응의 설득력이 크게 떨어진다.

일이 줄어든 세상에서는 누가 공동체의 구성원이고 누가 아니냐는 물음을 회피할 길이 없다. 조건적 기본 소득을 실행한다면 보편적 기본 소득에서처럼 이 쟁점을 회피하지 않고 직접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 수급 자격 요건

보편적 기본 소득 옹호자들은 오히려 누구나 지원금을 받는 것이 실제로는 매우 중요하다고 대응한다. 첫째, 그런 지원금이 낭비가 아니다. 둘째, 이 방식이 실용적이다. 가장 중요한 셋째 이유는 수급자에게 낙인을 찍지 않는다는 것이다.

노동의 시대인 오늘날에는 이렇게 일할 의지를 꺾는 악영향이 기본 소득에 반드시 어떤 조건이 붙어야 한다고 생각할 타당한 근거가 될 것이다. 기본 소득을 받는 사람이 여전히 일하기를 바라도록, 확실한 보장책을 마련하고 싶을 터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이 줄어든 세상이 다가오므로, 이런 주장은 설득력이 무척 떨어진다.

그런데 일이 줄어든 세상에서는 기본 소득에 조건이 붙어야 하는, 그러니까 보편적 기본 소득이 아니라 조건적 기본 소득이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기본 소득의 핵심이 노동시장이 아니라 공동체를 지탱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일이 줄어든 세상은 둘로 크게 갈린 곳이 될 것이다. 공동체의 경제에 그다지 기여하지 못한 채 다른 사람의 생산 활동에 기대 소득을 얻는 많은 구성원과 생산 활동으로 공동체에 기여하는 나머지 구성원으로. 그렇게 둘로 나뉘 사회를 하나로 유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도전이기 마련이다.

보편적 기본 소득은 이런 반응을 고려하지 못한다. 물질적 번영을 더 골로루 나누는 방법으로 분배 문제는 해결하지만, 누구든지 동료 시민이 어떤 식으로든 사회에 이바지한다고 느끼게 보장해야 하는 기여 문제는 무시한다.

오늘날 사회 연대는 능력만 있다면 누구나 경제에서 제 몫을 하려고 노력한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곧장 마뜩잖은 표현이 날아간다.

기본 소득에 반드시 자격 요건을 포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일로 공동체에 기여할 수 없다면, 공동체를 위해 일 대신 다른 무엇을 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아마 동료 시민을 돌보고 지원하거나 아이들에게 세상에서 성공하는 법을 가르치는 지식 노동과 문화 노동일 것이다. 이런 기여 활동이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는 각 사회가 정해야 한다.

- 다양성 문제

다가올 세기에는 분배 정의 즉, 사회의 재원을 어떻게 나누느냐가 더 시급한 문제가 될 것이다. 하지만 기여 정의 즉, 누구든지 동료 시민이 사회에 이바지하고 있다고 느끼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냐는 물음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압박할 것이다.

- 자본을 분배하는 정부

일이 줄어든 세상에 대처하도록 큰 정부가 맡을 다른 역할도 있다. 그중 하나가 애초에 소득이 생기는 출처 즉, 가치 있는 자본 자체를 분배하는 것이다.

보편적 기본 소득이나 조건적 기본 소득이 기본 소득을 제공하는 데 비해, 이 방식은 기본 재산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전통 자본을 분배하는 것이 매력적인 까닭은 두 가지이다. 첫째, 큰 정부가 맡는 소득 분배 역할을 줄일 수 있다. 둘째, 자본을 분배하면 사회의 경제적 분열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

어떤 의미에서 정부는 이미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정부는 20세기에 들어선 뒤로 지금껏 인적 자본을 되도록 폭넓게 분배하려고 애썼다. 그 핵심이 바로 대중교육이다.

이제 노동의 시대가 저물고 있으므로 큰 정부는 전통 자본도 분배할 길을 찾아야 한다.

자본을 분배하는 정부가 주식이 없는 사람들을 대신해 주식을 확보하는, 그러니까 시민들을 대신해 펀드에 투자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 노동을 지원하는 정부

우리가 전통적으로 경제적 번영을 분배하던 방식인 노동시장에 더는 분배를 기대할 수 없다.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나는 큰 정부가 이 흐름을 좇아 경제에 개입해, 신기술이 창조한 경제적 번영을 재분배하는 역할을 맡는 방법을 제시했다.

그런데 다른 대안이 있다. 이런 이동 방향을 거부하는 것이다.

도대체 왜 경제의 이동 방향을 거부해야 할까? 한 가지 분명한 답은 일에 '경제와 상관없는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순전히 경제적인 이유로 일의 세계를 방어하자는 주장은 그다지 설득력이 없다.

큰 정부는 경제의 이동 방향을 바꾸는 쪽과 소극적으로 그 흐름을 따르는 쪽 사이에서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 이를 '노동을 지원하는 정부'라 부를 수 있다. 이런 정부는 전환기 동안 노동시장에 개입해 노동자를 지원하고, 어떤 일자리든 남은 일자리의 질과 보수가 계속 유지되도록 보장한다. 그러므로 경제가 흘러가는 최종 목적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에게 되도록 평탄한 여정이 되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노동을 지원하는 정부는 고용주들이 마주하는 실제 동기를 바꾸는 데 집중해, 고용주들의 이익과 사회의 이익을 더 가까이 연결해야 한다.

고용주와 사회를 연결하는 한 방법은 조세 제도다. 현재 미국에서는 조세 제도가 의도치 않게 자동화를 부추기고 있다. 사람 대신 기계를 쓰는 고용주에게 이를테면 직원 임금에 따라붙는 사회보장세, 실업보험을 내지 않아도 되는 몇 가지 주요 세제 혜택을 주기 때문이다.

다른 접근법은 법을 이용하는 것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노동시장의 다른 영역에 있는 사람들과 비슷한 보호를 받도록 법을 개정해 이들을 돕는 것이다.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의 격차가 무척 큰 일자리의 임금을 높일 수도 있다. 노동 시간 관련 규제를 개선하자는 제안을 갈수록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

노동을 지원하는 정부의 마지막 역할은 더 직접적이다. 이 정부는 새로운 형태의 노동 조직이 출현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chapter 11 기술 대기업

일이 줄어든 세상이 다가올수록 기술 대기업이 우리 경제생활을 갈수록 더 많이 지배할 전망이다.

기술 대기업의 변성과 이들의 날로 커지는 정치적 힘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은 일의 감소를 이해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

- 왜 기술 기업인가?

날이 갈수록 우리 삶의 구석구석이 디지털화되어 이제 우리는 물질세계 위에 0과 1로 구성된 평행 세계를 만들고 있다. 그러니 미래에 다양한 기술 기업이 거의 모든 경제 분야를 주무르는 상황을 피하기란 무척 어려워 보인다.

미래에 존재할 기술 기업들이 오늘날 가장 낯익은 기업들이 아닐지 모른다는 데 유념해야 한다.

- 왜 대기업인가?

오늘날의 기술 거인들과 마찬가지로, 미래를 지배할 기술 기업들도 규모가 무척 크리라 예상할 수 있다. 여기에는 많은 신기술이 개발에 엄청난 돈의 드는 것도 한몫한다. 최고의 기계를 만들려면 세 가지 값비싼 자원이 있어야 한다.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 세계 최고의 소프트웨어, 강력하지 그지없는 하드웨어. 이 세 가지에 드는 돈을 한꺼번에 감당할 수 있는 곳은 대기업뿐이다.

우위를 차지할 기술 기업이 '대기업'일 또 다른 이유가 있다. 많은 신기술이 매우 강력한 '네트워크 효과'로 이익을 얻는다.

- 기술 대기업을 우려하는 경제적 논거

앞으로 우리 경제를 기술 대기업이 지배할 확률이 높다. 그런데 역사를 살펴볼 때 정부는 이렇게 경제를 지배하는 세력이 나타나는 것을 반기지 않았다. 아주 거칠게 이야기하자면, 독점은 나쁘고 경쟁은 좋다는 개념을 동력 삼아 경쟁 정책을 개발했다. 오늘날 최상위 기술 기업들은 이 정책을 실행하는 역할을 맡은 정부 당국과 이미 충돌하고 있다.

경쟁 정책과 관련한 가장 단순한 물음에조차 명확한 답을 찾기가 쉽지 않다. 게다가 상황을 복잡하기 짝이 없게 만드는 문제는 독점이 매우 이로울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런 회사들이 휘두르는 경제적 힘이 아무리 강력할지라도 기술이 계속 진보하면, 우리가 걱정할 대상이 기술 대기업의 경제적 힘에서 정치적 힘으로 바뀔 것이다.

- 기술 대기업을 우려하는 정치적 논거

우리가 이런 신기술을 걱정하는 까닭은 이 기술들이 우리가 공유하는 생활 방식을 지탱하는 사회 구조를 왜곡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간단히 말해 우리는 이 기술들의 정치적 힘을 우려한다. 우리가 함께 어떻게 살아갈지를, 우리 사회가 아니라 이 기업들이 통제해 결정하지 않을까 걱정한다.

우리가 행동에 나서지 않는다면, 앞으로 그런 결정을 기술 대기업에서 보이지 않게 제 할 일을 하는 엔지니어들이 갈수록 더 많이 좌지우지할 것이다. 쉽게 말해 우리의 정치 생활이 '사유화'될 위험이 있다.

- 정치적 힘을 감독할 수 있는 기관

기술 대기업의 국유화가 아니라 신규 규제 기관이 있어야 한다. 이런 기술 대기업의 경제적 힘을 규제하는 경쟁 관리 당국의 정신에 부합하지만, 경제적 힘이 아니라 정치적 힘을 제한하는 임무를 맡는 곳을 세워야 한다. 이런 기관을 '정치적 힘 감독 기관'이라고 해 보자.

이 기관의 첫 임무는 정치적 힘이 악용되었을 때 감독관들이 이를 분명하고 체계적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 일련의 틀을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새로운 감독 기관도 과잉 반응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 정치적 힘 감독 기관의 목표가 기술 대기업의 정치적 힘을 모조리 없애 버리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경쟁 관리 당국이 경제적 힘의 장점과 위험을 모두 고려하듯이, 이 새로운 감독 기관도 반드시 비슷하게 균형을 잡아야 한다.

기술 대기업의 경제적 성공은 우리의 정치 생활을 제멋대로 이용해도 되는 자유 이용권이 아니다.

우리에게는 정치 이론가와 윤리학자를 채용하는 새로운 기관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그저 시장을 구성하는 소비자가 아니라 사회를 구성하는 시민인 개인을 보호해야 한다.

chapter 12 삶의 의미와 목적

기술적 실업에는 또 다른 위협이 존재한다. 기술적 실업은 사람에게서 소득을 빼앗아 갈뿐만 아니라 삶의 의미까지도 앗아갈 수 있다.

삶의 의미를 얻었던 주요 원천이 사라질 때 우리는 어떻게 삶의 의미를 찾아야 할까?

- 인간은 왜 그토록 일에 의미를 부여할까?

모든 경제학자가 일의 개념을 언제나 인정머리 없이 좁게만 인정하지 않았다. 일은 프로이트가 보기에 는 사회 질서의 원천이었고, 베버가 보기에 는 사람들에게 더 원대한 목적을 제공했고, 야호다가 보기에

는 삶의 체계와 방향을 제시했다.

저녁 파티에 가면 낯선 사람이 "무슨 일을 하십니까?"라고 묻는다. 흔히들 우리가 하는 일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의미심장하게 말한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이 대목이 중요하다. 일의 중요성은 노동자가 삶의 의미를 느끼는 데만 있지 않다. 노동자의 사회 활동 차원에서도 중요하다.

일자리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일이 삶의 의미와 놀랍도록 연결된다.

우리 시대에 널리 퍼진 정치 철학인 능력주의는 이 상황에 그리 도움이 되지 않는다. 능력주의는 재능이나 노력으로 보아 일을 맡을 만한 사람이 일을 얻는다는 개념이다. 하지만 일이 곧 능력을 뜻한다면 일이 없는 사람은 자신이 능력 없는 사람이라고 느낄 것이다.

일이 있는 사람들은 일이 없는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일이 없는 사람들은 일이 있는 사람들에게 억울함을 느낀다.

- 삶의 의미와 일의 관계는 절대적인가?

아리스토텔레스는 삶의 의미를 오로지 여가에서만 얻을 수 있고 일은 여가를 얻고자 치르는 대가일 뿐이라고 믿었다.

고대 신화와 종교 경전에서도 일을 의미 있는 삶의 원천이라기보다 형벌로 그릴 때가 많다.

이론이 무슨 말을 하든 솔직히 말해 일은 언제나 많은 사람에게 비참함을 안겼다.

사회학자 데이비드 그레이버의 말대로, 오늘날 많은 사람이 "개똥같은 일"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마지막으로, 의미 있는 일자리를 구할 만큼 운과 특혜를 누리는 사람들조차도 굳이 일하지 않아도 된다면 일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 일은 새로운 인민의 아편이다

삶의 의미와 일의 관계를 바라보는 사뭇 다른 두 관점이 있다.

먼저 일이 사회에 소득을 분배할뿐더러 삶의 의미도 공유하는 길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다. 다음으로 는 삶의 의미와 일의 관계를 모조리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일에서 겪는 모든 불행과 환멸을 자신의 믿음이 맞다는 확증으로 볼 것이다.

더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정확히 무엇을 할까?

이 질문에 흔히들 내놓는 답은 잘사는 부유층을 길잡이로 삼는 것이다.

문제는, 잘사는 사람들의 생활양식을 들여다봐도 특별히 중요한 사실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 대다수에게 일은 새로운 아편이다. 마약과 마찬가지로, 일도 어떤 사람들에게 기분 좋은 목적의식이 솟구치게 한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일에 취해 갈피를 못 잡게 함으로써 주의를 흐뜨려 다른 곳에서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게 막는다.

일이 우리 마음속에 워낙 깊숙이 뿌리내린 탓에, 우리가 일에 몹시 의존하는 탓에, 일이 줄어든 세상이 다가오리라는 생각을 흔히들 본능적으로 거부하고 실제로 생각을 하더라도 중요한 내용을 전혀 표현하지 못한다.

이 사회는 이런 자유를 얻어낼 만큼 값진 더 고귀하고 의미 있는 활동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케인스가 걱정한 대로 "어떤 나라도, 어떤 사람도 여가의 시대와 풍요의 시대를 두려움 없이 기쁜 마음으로 기대할 능력이 없다. 우리가 즐기기도 죽어라 애쓰도록 너무 오랫동안 길들여졌기 때문이다."

- 여가가 끔찍한 선물이 되지 않기 위한 정책

마리 야호다가 마리엔탈 마을에서 연구하는 동안 발견한 몹시 괴로운 사실은, 일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여가가 '끔찍한 선물'이 되었다는 것이다.

기술적 실업이 일어나는 세상에서 이와 같은 낙담과 절망이 퍼지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 교육 재검토하기

오늘날 대다수 교육기관의 우선순위는 사람들이 일의 세계에 대비하도록 가르치는 것이다.

지금은 우리가 일과 성공한 삶을 하나로 본다. 일에서 성공하는 것이 곧 인생에 성공하는 것이라고 믿으므로 양쪽에 필요한 숙련 기술이 똑같다. 하지만 할 일이 줄어든다면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 대비하도

록 가르쳐야 한다.

정치인, 학자, 정책 연구자들이 학교에서 '개성'과 '삶의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날이 갈수록 목소리를 높인다. 저명한 철학자들의 정신에 집중하는 어느 싱크 탱크는 우리가 학생들의 '미덕'을 길러 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테면 "정직과 친절 같은 윤리 덕목, 사회봉사 활동 같은 시민 덕목, 호기심과 창의성 같은 지적 덕목, 근면과 인내 같은 실행 덕목"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다. 일이 줄어든 세상에서 성공한 삶을 사는 데 필요한 숙련 기술이 정확히 이런 것들인지에 대한 의견이 갈릴지 모르겠다. 하지만 교육의 역할을 직장 생활에 필요한 기본 능력 너머로 확장해 다시 논의하는 이런 기초 활동은 바람직하다.

- 여가 형식 결정하기

어떤 여가 생활을 둘러보든 공식 정부 부처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공적 지원을 받는 신탁, 재단, 단체들이 그물망을 이뤄 우리가 특정 활동을 선택하고 다른 활동을 그만두도록 은근히 부추기는 것을 어렵잖게 볼 수 있다.

또 의도치 않은 여가 정책이라고 표현할 만한 사례도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연금 제도다.

정부가 다양한 프로그램과 방법으로 자원봉사를 지원한다. 이런 지원책도 사람들이 무료로 다양한 활동을 하며 여가를 보내도록 장려하므로 여가 정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 사회가 구성원들에게 어떤 여가 활동을 장려하고 싶을지를 지금 탁상공론으로 너무 많이 규정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여가를 의미 있고 쓸모 있게 쓸 방법을 심사숙고하는 것은 미래 세대의 몫이다.

• 다시 '일'을 생각하기

어떤 사람들은 느긋하게 여가 생활을 경험한 뒤 자기에게는 일처럼 성취감이나 목적의식을 제공하는 활동이 없다고 결론지을지도 모른다. 다른 곳에서 소득을 얻더라도, 자기가 찾는 삶의 의미를 얻을 길을 '직업'뿐이라고 판단할지 모른다.

먹고살고자 일해서 돈을 벌어야 했던 모든 제약이 사라지면, 어떤 의미에서는 무엇이든 그런 역할이 될 수 있다.

사람들이 더는 소득을 일에서 직접 얻지 않는다면, 그런 일을 계속 '일'이라고 불러도 괜찮을까? 아니면 여가라고 불러야 할까?

오늘날 어떤 사람들에게 일이 삶의 의미를 얻는 원천인 까닭은, 일 자체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인생 대부분을 일에 쏟아 붓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가 실제로 하는 일에서만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만약 인색을 마음껏 다르게 보낼 수 있다면, 우리는 다른 곳에서 삶의 의미를 찾을 것이다.

• 조건적 기본 소득의 역할

오늘날 사회 연대는 모든 사회 구성원이 보수를 받고 하는 일과 정부에 내는 세금으로 사회의 공동 기금에 이바지한다는 의식에서 비롯한다. 앞으로 이런 연대를 유지하려면, 유급 노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 적어도 어느 정도 시간을 써서 경제와 상관없는 다른 방식으로 공동체에 이바지해야 한다.

내가 제안한 '조건적 기본 소득'이 지원하려는 활동이 바로 이것이다. 이 소득은 보편적 기본 소득이기는 하지만 수급자가 그 대가로 무엇인가를 해야만 한다. 만약 우리가 이 방식을 채택한다면, 앞으로는 일이 없는 사람들의 일상생활이 여가와 유급 노동이 아닌 다른 두 가지로 나뉠 것이다. 자신이 선택하는 활동과 공동체가 이들에게 요구하는 활동으로 말이다.

무엇을 기여로 보고 무엇을 그렇게 보지 않을지에 대한 결정은 미래의 공동체가 말아야 할 몫이다. 사회마다 다다른 결론은 다를 것이다. 어느 사회든 이런 목록을 작성하는 곳이라면, 어떤 활동을 가치있게 여기고 어떤 활동을 그렇게 보지 않을지를 정해야 할 테다.

• 삶의 의미를 만드는 정부

중요한 교훈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자유 시간이 우리 삶에서 더 큰 부분을 차지한다면, 정부의 역할에서도 더 큰 부분을 차지할 것이다. 노동의 시대인 오늘날 노동 생활에 영향을 미치도록 설계한 개입 정책이 있듯이, 일이 줄어든 세

상에서는 자유 시간에 영향을 미칠 수단들이 있어야 한다.

둘째, 일에는 순전히 경제적인 측면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다. 물론 언제나 이런 관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일이 소득을 얻는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일이 강한 목적의식을 얻는 길이기도 한다.

이 두 교훈에서 큰 정부가 말아야 할 마지막 역할, 삶의 의미를 만드는 정부가 생겨난다. 우리는 삶의 의미를 만드는 정부가 여가 정책과 조건적 기본 소득 같은 개입 방안을 이용해, 일의 자리를 메꿀 원천들을 관리하기를 바랄 것이다.

일이 줄어든 세상에서는 근본적인 목표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는 그저 어떻게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잘 사느냐'다. 그때 우리는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정말로 어떤 뜻인지를 깊이 생각해 봐야만 할 것이다.

• 마치며

21세기에 우리는 그 토대를 유급 일자리에 기대지 않는, 새로운 안정의 시대를 구축해야 한다. 그리고 그 작업을 오늘 시작해야 한다. 정확히 얼마 뒤에 인간이 맡을 일이 줄어든 세상이 닥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세상이 오고 있다는 조짐은 분명하다. 불평등, 정치적 힘, 삶의 의미는 저 멀리 먼 미래에 숨어 몸을 감추고 있는 문제들이 아니다. 이미 불거지기 시작해 우리가 오랫동안 유지해 온 제도와 생활 방식을 시험하고 어지럽히고 있다. 이제 여기에 대응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